



3면

"지방선거 개혁공천 공동선언"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음 2월 22일) 제298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투자심사 통과

행안부로부터 조건부 승인 2025년 개관 목표 소리문화전당과 연계 서예인·단체 입주 도모

한국서예의 대표공간이자 세계서예 비엔날레의 상설 전시공간으로 활용 예정인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도는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차질 없는 이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계서예비엔날레관은 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내 부지에 사업비 292억원(국비 204억원, 도비 88억원)을 들여

지하층, 지상4층(7,933㎡)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오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

'서예진흥법' 마련에 따라, 서예문화 진흥 및 발전을 위한 거점 공간이 건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며, 도는 한국서예의 국가적 상징이자 진흥공간인 비엔날레관 건립을 기획했고,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하며, 현재까지 추진해왔다.

작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 공역제산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조감도

심의 등을 추진한 바 있는 비엔날레관 건립사업은 이번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올해 5월경 설계공모 및 기본·실시설계, 2023년 공사착공,

2025년 상반기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을 통해 한국서예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를 실현하는 서예진흥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엔날레관은 교육영역, 산업영역, 전시영역, 체험영역으로 구성해 한국서예의 체계적인 발전을 이끌고, 지난 1999년부터 이어온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접한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연계하고, 서예인과 서예단체의 입주도 도모한다.

이와 더불어 관람객을 위한 체험·전시공간 확충으로 서예인과 도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서예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비엔날레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 한국서예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서예인과 도민에게 열린 예술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는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본 사업은 작년 하반기 투자심사에서 한차례 재심사 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 조정 등 조치 후 재심사를 진행했다. /유호상 기자

문 대통령, 신임 한은 총재에 이창용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뒤를 이을 신임 총재 후보자로 이창용(62) 국채보상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을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창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제학부를 나왔으며,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마쳤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C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쳐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으로 재직 중인 경제금융전문가다. /뉴시스



'반갑다, 매화야'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23일 전주시 완판본문화관 일대에 매화가 만개해 있다.

지반 불안정 사고 예방 목적... 도, 해빙기 저수지 안전점검

농업용 56곳 선정 민관공 합동 표본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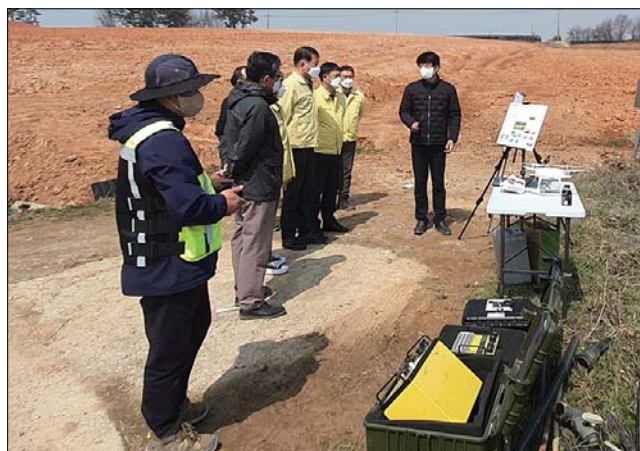
전북도가 해빙기를 맞아 고창군 소재 간점저수지, 노동저수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해빙기 지반 불안정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저수지 내구성과 기능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현재 간점저수지는 안전등급 D등급, 노동저수지는 B등급 저수지다.

특히, 저수지 안전관리 매뉴얼(농식품부에 따른 제방 누수 여·방수로 균열, 취수시설 가동 여·부 등 외관 조사뿐만 아니라, 전문장비(전기비저항탐사)를 활용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제방누수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또한, 도는 기상변화로 재해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시·군·한국농어촌공사의 자체 점검뿐 아니라, 3~4월에도 주관으로 저수지 민·관·공 합동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시·군은 자체 관리 중인 전체 저수지 1,763개소를 자체 점검한다. 이중 작년 표본점검 및 보수·보강 사업 대상지 등을 제외한 56개소(시·군별 평균 4개소)를 선정해 민·관·공 합동 표본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재해에 취약한 저수지에 대해



전북도가 해빙기를 맞아 고창군 소재 간점저수지, 노동저수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서는 도 농업정책과장을 반장으로 저수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전북도 공무원, 시·군, 방제기술 전문가, 마을주민, 한국농어촌공사 등 총 4개조 60여 명을 구성해 추가 점검한다.

또한, 표본점검 시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저수지에 대해 신속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정밀점검이 가능한 한국농어촌공사 안전진단사업과도 협업체정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중 재해위험성 있는 경우 즉시 응급조치하고, 표본점검 및 한국농어촌공사 정밀점검 결과를 종합해 시설

관리자(시·군)에게 알리고 등급 재조정 등 처리방안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상태등급이 미흡한(D등급) 저수지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해 연차별 저수지 보수·보강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유호연 도 농업정책과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해 영농기 도내 농업인들이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위기가구에 긴급복지 지원

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대상 생계·의료·전기요금 등

전북도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을 돕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며, 도움이 필요한 도민은 콜센터(☎120)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자가 지원신청을 하거나 이웃 주민이 신고하면 접수 후 1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다. 이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우선 지원하고, 추후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해 적정성을 심사한다.

소득·재산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384만1,000원), 일반재산 1억5,2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이 결정되면, 생계지원비·의료비·주거지원, 그 밖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단전·단수, 사회보험 체납자 등 관련 정보를 분석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을 발굴했다.

이에 2월까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5,639가구에 긴급 생계, 의료, 주거 등 29억원의 지원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